



진정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일제 교육 인지학 입문

2024년 12월 15일

안녕하세요.

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첫 석 달동안 우리는 사영 형태학 (기하학), 인식론, 현상학, 색의 발생, 식물학, 인간 신체의 삼중 유기 구조, 조소, 그림, 발성훈련과 노래부르기, 언어조형, 유리드미, 사고의 진화, 괴테의 동화, 루돌프 슈타이너의 삶과 괴테아눔에 대해 다루었고 괴테아눔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장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여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이뤼트메움은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생기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알아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오이뤼트메움의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께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후원자들,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인지학 학교의 학생들에게 고맙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던졌고, 그 덕에 이 기획이 첫 시작을 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벌써 다음 학년도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14일에 시작합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홈페이지 anthroposophieschule.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두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시간에 여러분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한 인사와 함께,

다니엘 하프너 드림

살로메 제베르거

인지학 공부는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내 삶을 계속해서 차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처음 석달동안 나에게 점점 더 뚜렷해진 것은 내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물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자 하는가?

이것을 연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나에게서 곧 많은 과목들의 중심 내용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색이 우리에게 말하게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빨간색으로 들어가 그 색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종이 위에 그리고자 노력한다. 조소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 형태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만약 내가 텅 빈 형상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과정을 계속 따르거나 형상화하면서 나만의 고유함을 완전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만큼은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보일까, 어떤 법칙을 발견하게 될까?

이 모든 경험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책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나는 “사물의 본질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를 다루는 생생한 사고 과정을 발견하게 된다.



사고의 진화와 조형의 기본양식을 그린 칠판 그림

펠리치안 블레스

첫번째 주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함께 공부하는 사무엘에게 내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수업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벌써 다음에 배울 것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다.” 적어도 나는 이제까지의 학교생활이나 다른 교육 경험에서 이런 종류의 열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아마도 여기에서 배우는 괴테의 색채론이라던가 인식론과 같은 주제들이 내 이전 관심영역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반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방식의 수업이 엄청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가진 열정을 느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멋진 방식으로 나는 그림, 언어조형과 유리드미 같은 인지학 예술분야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다. 예외없이 매우 저명하고 재능있는 선생님들로부터 뿔어져 나오는 지극히 경쾌하면서도 동시에 필수적인 진지함을 통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특히 유리드미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상호작용 덕분에, 수업 장소를 오이뤼트메움으로 정한 것은 긍정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그 덕에 지난번 4학년 유리드미 학생들의 솔로 공연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온종일 생각에 무척 집중하고 난 뒤 멋진 경험이 되었다!

엘리사 비즈너

하프너 선생님께

선생님, 사람들 그리고 젠터 선생님과 함께 일출 전에 자연을 관찰한 것이 인상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숲, 집들, 그리고 빗방울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어둠 속에서 모든 것들이 평면적으로 보이다가 점점 밝아지면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했지요. 지구 위의 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느낌이 정말 소중한데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요. 빛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검은 색에서 짙은 회색,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던 것, 첫 새의 울음소리가 어땠는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얼마나 더디게 집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처음으로 불이 켜지고 창문이 환해지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밤과 어둠이 얼마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빛과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지구에 사는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느꼈습니다. 봄에 선생님과 그룹, 그리고 젠터 선생님과 함께 새 관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많은 새 소리를 듣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발도르프학교 9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생활동안 유리드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르술라 짐머만 선생님과 몇 시간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몇 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직립, 의미, 공간감, 그룹 내의 공존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내 몸과 정신에 도전이 되었던 어렵고도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이렇게 단번에 유리드미와 관계를 맺고 기뻐했습니다. 음악의 소리들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들과 나를 연결하고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리드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괴테의 식물 이론. 뿌리에서 꽃까지 모든 구조가 변하는 괴테의 식물의 변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집중주간동안 자연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꽃과 식물을 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학교 정원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했습니다 (전에는 식물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교실에서 가장 아래에 피어난 잎부터 가장 작은 꽃잎까지 동글게 배열했습니다. 아주 작은 꽃은 돋보기로 들여다보았어요. 이를 통해 식물의 세계, 가장 섬세한 선상 구조에까지 내 인식이 확장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신성이 그 안에 있는지요.

형태학적 기하학은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평행선이 무한대에서 만난다는 것어요. 저는 기하학적 모양을 만들고 그리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이 직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괴테의 색채론 집중주간에 우리는 둥근 무지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태양 주위에 신성한 기하학적 도형이, 달 주위에 색의 마당이 형성되고, 육각형 얼음 결정을 통해 태양이 비추면 색색의 호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물리적 경이로움에 놀랐습니다.

괴테의 동화가 매우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엘리사 열다섯 살



잎 형태 변화

메리 힌츠만

현실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다니엘 하프너의 교육과정 “인지학 입문”을 알기 훨씬 전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이것들은 또한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와 같은 슈타이너의 저술을 공부할 때에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때에도 늘 잠재해 있으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한 것은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 주제와 활동에서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중요한 깨달음은 현실성은 인식하는 주체인 나 - 순전한 주관성에 기울지 않고 - 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내 안에서 형성된 개념과 나의 지각을 연결함으로써 개념은 지각을 규정하고 실재적인 것으로 만든다. 인식의 역할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는 지금 단지 짐작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열심히 탐구해 볼 것이다. 나는 이 선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그리고 특히 예술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아주 감사한 마음이다. 예술활동은 또한 매우 치유적이다. 미적인 감각지각과 명료한 개념적 사고, 판단력을 함께 기르는 이런 방식의 훈련은 지금 이 시대에 근본적이고

도 필수적인 것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나에게 이 프로그램은 많은 통찰을 얻으면서도 하나의 공통된 맥락을 향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선물과도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 힌츠만

문주성

인지학 1학기에 나는 슈타이너의 저서 'GA2'를 읽었고, 다양한 인류학 수업을 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3개월 전, 아직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인지학 수업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인지학을 생소하게 느꼈다. 괴테와 슈타이너는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를 졸업한 나에게서는 더욱 낮은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인지학 수업이 있다는 소식은 나에게 단순한 흥미에 불과했고, 내가 참여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슈타이너가 누구인지, 괴테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도 전혀 없었다. 스위스에 입국하기 직전에 슈타이너의 책 몇 권을 읽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유럽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과 대화해본 경험도 없는 내가 비로소 무슨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 생애 처음으로 유학을 어디로 선택했고, 지금 내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첫 학기가 끝나고, 특히 첫 번째 책인 얀의 과학을 읽고 감각-경험-사고-지각-직관에 대해 배우고, 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슈타이너의 철학과 말대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지만 동시에 의심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내면 많은 부분을 건드렸다.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의 스위스 생활과 다음 학기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제 The Philosophy of Spiritual Activity, 자유의 철학으로 넘어간다. 이 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답을 주장하거나 주입하지 않고 단지 제안할 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답과 비교하고 도출시키는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런 인지학 수업의 경험이 나에게 또다른 새로운 자신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그림 연습

미하엘 제벨

나는 이 입문 코스에 대한 좋은 개괄을 얻을 수 있었다. 조소 집중주간에 구(球)에서 출발했다. 처음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느낌만으로 전체 덩어리에서 구를 빚어냈다. 두 번째에는 점토를 붙여서 구를 성형한 다음 내부의 힘을 바깥쪽으로 눌러서 또는 반대로 모양을 만들어 나갔다. 인지학 수업이 진행되는 오전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고 소득이 있었다. 언어 조형, 특히 수채화와 유리드미가 정말 좋았다. 7일 동안 따뜻하게 환영받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무엘 피셔

도르낙의 입문 코스는 지금까지 내가 바랄 수 있었던 것 이상을 주었다. 나날의 리듬 속에서 아침마다 우리는 사영 형태학의 조화로움과 합법칙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를 받았다. 괴테 세계관의 인식론적 기초 수업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지각과 사고의 토대를 탐구하였고, 무기적이고 유기적이고 영적인 세 영역과 문화적 영역의 과학적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유리드미, 언어 조형, 그림과 조소 등을 포함하여 영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나는 창조를 형성한 움직임과 그 속에 숨은 지혜에 대한 건강한 통찰이 무엇일까 추측하고 헤아린다. 온종일 이어지는 리드미컬한 일정은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인지학의 진정한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



괴테아눔과 보일러실이 보이는 글라스하우스 테라스에서 잠시 쉬고 있다.
(왼쪽부터) 살로메, 엘리사, 메리, 다니엘 하프너, 요하네스 쾰, 사무엘, 펠리치안. (문주성 찍음)

이 기획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안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기부를 위한 계좌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이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를 위해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소유자 (Kontoinhaber): Selbstbestimmt Studieren e.V.

목적 (Zweckbestimmung): Einführung in die Anthroposophie (인지학 입문)

계좌 번호 (Kontonummer): DE39 4306 0967 1062 5063 00

BIC: GENODEM1GLS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좌 소유자 (Kontoinhaber): Daniel Hafner (다니엘 하프너)

계좌 번호 (Kontonummer): DE82 7605 0101 0011 6917 14

BIC: SSKNDE77XXX

스위스 프랑으로 송금하는 경우:

계좌 소유자 (Kontoinhaber): Verein Eurythmeum CH (스위스 오이뤼트메움 협의회)

목적 (Zweckbestimmung): Einführung in die Anthroposophie, Kostenstelle 2010

IBAN: CH13 8080 8003 5903 5428 1

BIC: RAIFCH22XXX

숙소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